

##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명확성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조 하 정 이 다 예 박 선 응<sup>†</sup>  
고려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정체성 명확성이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의 대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문을 통해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느낀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를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주어진 글쓰기 과제를 통해 정체성 명확성 조건과 통제 조건으로 무선행당되었다.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각했던 경험을 작성하였고, 통제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태 물질주의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로부터 느낀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는 정적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다. 또한,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가 기질적 물질주의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통제 조건에서는 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 정체성 명확성 조작은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정적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통제 조건에서는 유의했으나,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기질적 물질주의, 성별, 나이, 학년이 공변인으로 투입됨).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두 변인, 즉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가 서로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으며, 자신만의 내적 기준을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이 물질주의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학업성취압력, 물질주의, 정체성 명확성, 정체성

\*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은 유아 및 청소년기 전 연령대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OECD, 2020). 같은 조사에서 2019년 청년층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도 69.8%로 OECD 평균인 45%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만큼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뛰어나다.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수학 및 과학에 대한 성취도는 전체 참여국 중 1~4위로 최상위권이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국 학생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과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9~17세 아동들의 스트레스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숙제나 시험 때문에’, 그리고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였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문제는 부모님의 학업성취압력이 과도해지면, 이를 지각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업에 대한 성취압력은 개인의 물질주의 수준을 높이는데(송순, 신현실, 2002), 높은 물질주의는 객관적인 물질적 성취 수준과는 무관하게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희성, 김태익, 박유빈, 박선웅, 2017).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압력에서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찾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사이의 조절변인으로서 정체성 명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물질주의

많은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를 행복의 척도이자, 사회적 성공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여긴다. 이렇게 물질의 소유 자체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가치로 삼는

신념을 물질주의라고 한다(Richins & Dawson, 1992).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물질주의가 높은 사회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은 가장 자본주의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한국과 문화가 비슷한 일본, 한국보다 훨씬 가난한 국가인 짐바브웨의 사람들보다 물질적 부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Suh, Prieto, Diener, & Tay, 2010). 또한,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물질적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 Richins & Dawson, 1992)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Flynn, Goldsmith, & Kim, 2013), 그리고 중국인과 인도인에 비해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Cho, Jin, & Watchravesringkan, 2016). 구재선과 서은국(2015)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돈을 포함한 외적 가치를 내적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높은 물질주의는 사회의 빠른 변화와 안정성의 상실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Ger와 Belk(1996)에 따르면,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전통적 규범이 붕괴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를 보인다.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전쟁을 지나,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사회경제적으로 유례없는 격변의 시기를 경험했다. 한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설립된 이래 최초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이며(외교부, 2021),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하면서 원조수혜국에서 선진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기획재정부, 2009). 이처럼 기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와 규범이 의미를 상실하면, 사람들은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물질의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Ger & Belk, 1996). 한국의 높은 물질주의 역시 이러한 사회 격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높은 물질주의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물질주의

와 심리적 웰빙 간에는 공고한 부적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물질주의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물질주의는 삶의 만족도(이민아, 송리라, 2014; Diener & Oishi, 2000; Richins & Dawson, 1992; Ryan & Dziurawiec, 2001), 긍정 정서(Christopher & Schlenker, 2004) 등과는 부적인 상관을 가진 반면, 우울(이민아, 송리라, 2014; Kasser & Ryan, 1993), 불안(Kasser & Ahuvia, 2002; Kasser & Ryan, 2001), 부정 정서(Christopher & Schlenker, 2004) 등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선행연구들은 학업성취압력을 크게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추상엽, 임성문, 2008). 양육태도로서의 학업성취압력은 부모의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정의되며, 긍정적인 교육방식으로 여겨진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반면 양육행동으로서의 학업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평가와 보상을 통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홍은자, 2002).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학업성취압력은 후자에 해당하고, 자녀가 지각한 학업성취압력,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느끼는 부모의 압력 정도로 측정한다(김유진, 김종운, 2013).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전통적 가치와 규범이 무너지고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에서는 학업의 성취가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주요 통로로 인식된다(오욱환, 1999).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으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물었던 설문조사에서, 5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 안정된 노후 보장 등 물질적 가치와 관련된 조건들이 1~3위로 꼽힌 결

과(매일경제, 2012, 12, 23)는 한국 사회에서의 계층의 상승은 곧 물질적 부의 증가를 의미함을 잘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김유나, 설경옥, 박선영(2017)은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관심에는 물질적 부로 대변되는 사회적 성공 및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학업성취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물질적 부에 대한 과도한 욕망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Deci & Ryan, 2000)에 따르면, 사람은 외적 가치보다 내적 가치를 추구할 때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동기를 발휘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더 깊고 자발적으로 관여한다. 내적 가치는 개인적 성장, 공동체 공헌, 긍정적 대인관계 등 그 자체로 만족감을 주는 가치들을 가리키며, 외적 가치는 경제적인 성공, 매력적인 외모, 사회적 유명세 등 타인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가치들을 말한다(Han, Kim, & Park, 2018; Kasser & Ryan, 1996) 자기결정이론에 기반한 많은 연구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욕구들을 충족시켜야만 내적인 성장과 통합을 이뤄 심리적 안녕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적 가치의 추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외적인 가치만을 좇아서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심리적 웰빙도 누릴 수 없다(Kasser, 2002; Kasser & Ryan, 1993).

지식의 확장과 깨달음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의 학업성취 추구는 개인적 성장이라는 내적 가치의 추구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취압력은 개인 내적인 성장이 아니라, 물질적 성공과 같은 다른 외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업성취를 인식하고 추구하게 만든다. 부모가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자녀를 과하게 압박하는 것은 자녀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빼앗고, 자녀가 미래의 외적 보상만을 기대하며 학습에 임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과한 학업성취압력 속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의 배움보다는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더 많은 물질적 성취를 이루는 것에 집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성이라는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자라난 자녀는 외적 요구 혹은 외적 보상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된다(Deci & Ryan, 2000). 같은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훗날의 경제적 성공 등 외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외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학업성취를 추구하게 한다면, 자녀에게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전파되고 결과적으로 높은 물질주의 수준이 유발될 수 있다.

실제로 송순과 신현실(2002)은 부모의 경쟁적 성취압력과 대학생의 물질주의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그 이유를 부모의 성취압력의 방향성이 개인의 성장이나 공동체 기여 같은 내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보상 같은 외적 가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물질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손쉬운 수단이며, 물질의 소유 혹은 성취 정도를 통해 사회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성공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받은 자녀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관심사와 내적 가치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주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장은영, 2009).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받은 자녀는 타인을 능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많은 물질의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이는 결국 높은 물질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체성과 물질주의

정체성<sup>1)</sup>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결단을 내린 정도를 뜻한다(박선웅, 2020; 박선웅, 박예린, 2019; Levin, 2003; Waterman, 1984). Marcia(1966)는 정체성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정체성 탐색(exploration)과 정체성 전념(commitment)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정체성 탐색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에 관한 탐구와 발견이며, 정체성 전념이란 특정 선택에 정착하여 그에 걸맞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체성이 명확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탐색과 전념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해 내면의 심리적 불안감이 결여된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외적 가치에 의존함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을 획득한다(Kasser, Ryan, Couchman, & Sheldon, 2004; Rindfleisch, Burroughs, & Wong, 2009). 다시 말하면, 결국 심리적 불안전감이 외적 가치에 대한 과도한 추구, 즉 물질주의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가 심리적 불안전감과 물질주의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물질주의가 높았고(Chaplin & John, 2007; Kasser & Kasser, 2001), 자기개념 확실성은 물질주의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Noguti & Bokeyar, 2014). 또한, 물질주의는 무규범 상태와 자기의심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Chang & Arkin, 2002), 죽음에 대해 상기함으로써 실존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역시 물질주의의 상승을 야기했다(Arndt, Solomon, Kasser, & Sheldon, 2004).

이처럼 기존 연구들에서 물질주의의 선행요

1) 정체성은 보통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과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으로 구분된다. 집단 정체성이란 국가나 인종 등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정체성을 가리킨다. 반면, 개인 정체성이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정체성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인으로 상정한 각종 존재적 불확실성, 즉 불확실한 자기개념, 낮은 자존감,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 등은 모두 불명확한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서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 외적 가치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다(Kasser et al., 2004).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외적 가치인 물질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신에게 중요한 주관적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된다.

박선웅과 박예린(2019)은 정체성 불명확성을 물질주의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하는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글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정체성 명확성을 조작했고, 반대로 정체성에 대해 불명확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글을 쓰게 하는 것으로 정체성 불명확성을 조작했다. 그 후 물질주의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경험되는 물질주의인 상태 물질주의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정체성 명확성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정체성 불명확성을 경험한 참여자들보다 더 낮은 물질주의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에서는 통제 조건 없이 정체성 명확성과 불명확성 조건만을 사용했다. 따라서 참여자의 상태 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정체성 명확성인지 혹은 불명확성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박선웅과 박예린의 연구와는 다르게 정체성 불명확성 조건 대신 중립적인 글쓰기를 하는 통제 조건을 사용하여 정체성 명확성 조장이 물질주의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높은 학업적 기대를 받고 있고, 또래, 선생님, 부모님 같은 타인들에게 학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발달시키기 쉽지 않다(이숙, 우희정, 김미란, 2000).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학업성취를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 자녀는 내적 자기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키기 어렵고(Levine, 2006), 과도한 학업적 요구와 압력으로 인해 자율성을 상실하고 학습된 무력감이 증가한다(최보가, 손낙주, 1998).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해 나가기보다는 부모가 주입한 가치관에 따라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된다. 또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강점과 같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보에 대해 무지하고 둔감해진다.

반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고,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온 개인은 성취를 강요하는 외부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적인 기준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Berzonsky, 2003; Meeus, Iedema, Helsen, & Vollebergh, 1999). 강압적인 학업성취의 요구를 받아도 자신의 가치관에 맞추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형성한 사람은 학업성취압력에도 불구하고 신분 상승이나 물질적 성공 등 외적으로 잘 드러나는 가치들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형성하여, 다양한 인생 과제를 수행하고 삶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기다운 삶을 살며 높은 심리적 웰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Erikson, 1968; Campbell, Assanand, & Di Paula, 2003; Park & Moon, 2020).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정체성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덜 받게 돕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한 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에서(Dumas, Ellis, & Wolfe, 2012),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높은 또래 압력을 받더라도, 정체성 탐색과 정체성 전념이 높은

청소년은 위험 행동에 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전념은 어떠한 행동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기만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부적 압력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명확한 정체성이 잦은 사회비교로 인해 외부로 향하고 있던 시선을 내부로 돌리고, 자신의 고유한 흥미와 특성 등 내적 가치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인위적으로나마 자신의 내면에 잠시 주목하게 만든다면, 순간적으로 내적 기준에 맞추어 사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만약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높게 느끼고,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인지하면, 순간적으로 물질주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 연구개요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물질주의 사이의 정적 관계를 정체성 명확성이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참여자들이 느낀 학업성취압력과 실험 조작 이전, 즉 특별한 외부의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기질적 물질주의) 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그 후 참여자들을 각각 정체성 명확성 조건과 통제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하였다. 정체성 명확성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글을 작성하게 하고,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에게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그 후 물질주의 수준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적 조작 이후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상태 물질주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기질적 물질주의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의 평균적 수준이라면, 상태 물질주의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적인 파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과 실험적 조작 이전에 측정된 기질적 물질주의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둘째,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는 기질적 물질주의에 비해 감소하지만, 통제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와 기질적 물질주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정적 관계를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가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제 조건에서는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사이의 정적 상관성이 나타나지만,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의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1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그중 글쓰기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1명은 제외한 후 총 1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여학생 62명).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2.15세(표준편차 = 2.40), 평균 학년은 2.75(표준편차 = 1.07)였다. 대학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본 연구는 해당 대학교에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공고문에 제시된 링크를 누름으로써 연구에 참여하였고, 조용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실험에 참여하라고 안내받았다. 참여자들은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에 응답한 후 두 집단에 무선할당되었다. 한 집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에 대해(정체성 명확성 조건), 다른 집단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통제 조건) 자세히 글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상태 물질주의 척도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한 보상으

로 소정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 측정 도구

##### 부모로부터의 학업성취압력

참여자들이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15문항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지각 척도(강영철, 2003)를 사용하였다( $\alpha = .95$ ). 본래 이 척도의 문항은 현재형으로 만들어졌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연구의 용례에 따라(김지근, 김나래, 2020) 현재형과 과거형을 함께 제시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하셨다).”와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하셨다).” 등이 있으며,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 = 매우 동의한다)로 나타내었다.

##### 기질적 물질주의

참여자들이 실험적 조작 이전에 평소 지니고 있는 물질주의, 즉 기질적인 물질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물질적 가치 척도(Richins, 2004; Richins & Dawson, 1992)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유지혜, 설경옥, 2018)을 사용하였다( $\alpha = .87$ ). 이 척도는 버전에 따라 여러 가지 문항수를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9문항 버전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로 나타내었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가 있다.

##### 상대 물질주의

상대 물질주의는 기질적 물질주의와 달리 특정 상황이 물질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 즉 실험적 조작으로 인해 변화한 물질주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다. 실험적 조작을 시행한 후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물질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hang과 Arkin(200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물질적 가치 척도 문항에 “지금(right now)” 등의 같은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평상시와는 구분되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느낌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라는 문항을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로 수정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 물질주의를 측정하였다(박선웅, 박예린, 2019; Li, Lu, Xia, & Guo, 2018). 참여자들은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총 9문항에 응답하였다( $\alpha = .87$ ).

##### 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공변인으로 사용되는 인구학적 변인으로 나이와 학년, 성별을 포함하였다. 변주영과 강민주(2016)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가 증가하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로부터의 성취압력이 줄어든다. 나이와 학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예상되지만,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재수나 삼수, 군 복무 등으로 학년이 다를 수 있고,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은 나이는 물론 학년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학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각 학년에 1에서 4점을 부여한 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의 기대에 더 민감하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Shek, 2000), 성별에 따라 지각되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 분석 시에 나이, 학년, 그리고 성별을 통제하였다.

##### 실험적 조작

참여자들은 정체성 명확성 조건이나 통제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정체성 명확성의 조작은 기존 연구에 사용했던 글쓰기 방법을 사용하였는데(박선웅, 박예린, 2019),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아래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글을 작성

하였다.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확실하게 답할 수 있게 되었던 순간(들), 다시 말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깨닫거나,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나, 명확한 가치관으로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리거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확신을 가지고 결심했던 경험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와 관련이 있었으며 귀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최대한 자세하고 생생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제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은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을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묘사해 달라는 안내에 따라 글을 작성하였다.

#### 정체성 명확성 조건의 예시 글

“저는 본래 뇌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창시절 항상 막연하게 ‘뇌과학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막연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걸 원하는가?’라는 의문을 꾸준히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KIST에서 진행한 성상교세포 연구실의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반 고등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성상교세포 연구의 선구자 이○○ 박사님의 연구실을 일주일 동안 견학하고 직접 실험에 참여해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실제 연구원들의 하루와 컨퍼런스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주일의 경험이 저에게는 어쩌면 평생 갈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느 학생들처럼 마냥 공부만이 목표였었고 삶의 의미도 그저 괜찮은 학교를 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 정도로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캠프를 다녀온 후, 저는 정말로 교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면 앞으로의 삶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교세포라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꺼리던 분야를 스스로 개척하고 나아가신 분입니다. 저는 이 박사님의 신념과 행적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내 뜻이 있다면 나의 길을 가자.’라는 인생의 모토이자,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학창 시절 막연하던 인생의 목표를 다잡고, 원하는 과에 도전하여 진학할 수 있게 되었던 소중한 사건입니다.”

#### 통제 조건의 예시 글

“오전 9시경에 기상하여,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공 강의였고 잠을 많이 못 잤기 때문에 아침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며칠 뒤 다시 들을 목적으로 그렇게까지 집중하여 듣지는 못했습니다. 11시 정도에 강의를 다 들은 이후에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웹서핑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보냈고, 온라인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 품목은 2만 원 내의 식품류였습니다. 웹서핑을 하면서 SNS에 접속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도 그리는 등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점심식사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 오후 3시가 되자 또 다른 온라인 강의를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우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약 2주 전부터 제대로 듣지 않아 미뤄진 강의를 많았기에 밀린 강의들을 듣고 필기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감상하거나 잠시 잠을 자기도 했고, 집중이 되지 않는 바람에 다른 생각을 하는 시간도 길어 아침에 플래너를 정리하면서 계획해 둔 것의 절반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었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저녁을 먹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집이었음에도 식사는 혼자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밀린 공부를 마저 한 후

에 책상을 정리하고, 씻는 등의 약간의 개인적 비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자정을 넘어갔고, 그 후에는 핸드폰을 보는 등 자유 시간으로 남은 하루를 보내다가 새벽 1~2시경에 취침했습니다.”

## 결 과

###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가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 즉 평상시 가지고 있는 물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r = .34, p < .001$ .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송순, 신현실, 2002).

###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에 따른 물질주의 수준의 변화

정체성 명확성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

질적 물질주의와 상태 물질주의 수준 사이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물질주의 수준을 집단 내 변인, 실험적 조작을 집단 간 변인으로 설정하여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17) = 12.47, p = .001$ .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PSS의 EMMEANS syntax를 사용하여 단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의 평균값에서 보이는 바처럼,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 할당된 집단에서는 기질적 물질주의에 비해 상태 물질주의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F(1, 117) = 24.69, p < .001$ , 반면, 통제 조건에서는 두 물질주의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117) = 0.00, p = .997$ .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느꼈던 경험에 대해 글을 쓴 후 기질적 물질주의에 비해 상태 물질주의가 더 낮게 나타난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합치하고(박선웅, 박예린, 2019),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의 조절효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34$ ). 하지만, 세 번째 가설에서 제시했듯, 본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조건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평균	표준편차
1 학업성취압력	-	.41***	.36**	-.08	.08	-.11	4.12	1.54
2 기질적 물질주의	.24	-	.91***	-.10	-.13	-.12	4.48	1.13
3 상태 물질주의	.31*	.90***	-	.02	-.08	-.15	4.17	1.07
4 성별(여=0, 남=1)	-.25*	-.31*	-.33**	-	.29*	.10	-	-
5 나이	.04	-.06	-.00	.20	-	.67***	22.47	2.49
6 학년	.11	.06	.07	-.02	.82***	-	2.80	1.05
평균	3.75	4.22	4.22	-	21.83	2.70	-	-
표준편차	1.36	1.12	1.12	-	2.29	1.09	-	-

주. 대각선의 윗부분은 정체성 명확성 조건( $n = 59$ ), 아랫부분은 통제 조건( $n = 60$ )임.

\* $p \leq .05$ . \*\* $p \leq .01$ . \*\*\* $p \leq .001$ .

표 2. 상태 물질주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유의 확률
주변인	학업성취압력	0.09	0.05	.045
	정체성 명확성 조작 (통제 = 0, 실험 = 1)	0.18	0.25	.480
	학업성취압력 × 정체성 명확성 조작	-0.13	0.06	.038
공변인	기질적 물질주의	0.89	0.04	<.001
	성별 (여 = 0, 남 = 1)	0.04	0.09	.660
	나이	0.05	0.03	.060
	학년	-0.11	0.06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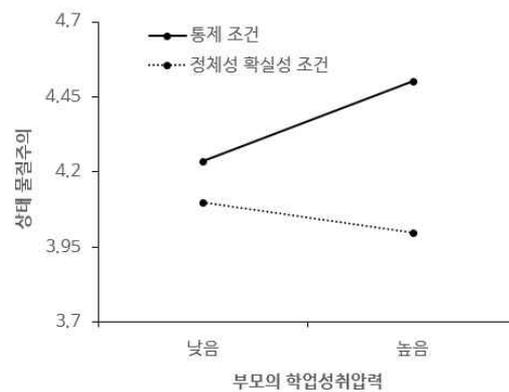
표 3. 실험 조건에 따른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실험 조건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유의 확률
통제 조건	0.09	0.05	2.03	.045
정체성 명확성 조건	-0.03	0.04	-0.82	.412

연구에서는 실험적 조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느끼게 되면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이러한 정적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PROCESS ver. 3.3, Model 1; Hayes, 2017). 구체적으로, 학업성취압력(독립변인),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조절변인),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종속변인인 상태 물질주의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기질적 물질주의, 성별, 나이, 학년은 공변인으로 투입되었다(표 2).<sup>2)</sup>

먼저 공변인 중에서는 기질적 물질주의가 상태 물질주의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상태 물질주의와 기질적 물질주의가 유사

한 문항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측정됨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물질주의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명확성 조작 여부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 즉, 정체성 명확성 조작이 학업



주. 학업성취압력의 높고 낮음은 ±1 표준편차 수준으로 설정. 기질적 물질주의, 성별, 나이, 학년이 공변인으로 투입되었음.

그림 1. 부모성취압력과 정체성 명확성 조작에 따른 상태 물질주의

2) Yzerbyt, Muller와 Judd(2004)의 제안에 따라 기질적 물질주의와 정체성 명확성 조작 간의 상호작용 항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추가로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압력과 정체성 명확성 조작 간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유의하였고( $b = -.126, SE = 0.64, p = .050$ ), 기질적 물질주의와 정체성 명확성 조작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아( $b = -.001, SE = .081, p = .988$ )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이 상호작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Aiken, West, & Reno, 1991).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는 통제조건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느꼈던 경험을 적었던 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이 높다고 할지라도, 상태 물질주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그림 1).

###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물질주의 간의 정적인 관계를 정체성 명확성이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가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를 측정된 뒤, 참여자들을 정체성 명확성 조건과 통제 조건에 무선할당하여 글쓰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정체성 명확성 조건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느끼고 이해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하게 하였고, 통제 조건의 참여자들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물질주의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상태 물질주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참여자가 부모로부터 느끼는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인 송순과 신현실(2002)의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한 것이다. 둘째,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들의 상태 물질주의는 기질적 물질주의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통제 조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명확성 조작은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 간의 정적인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 조건에서는 학업성취압력과 상태 물질주의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이런 정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라는 두 가지 변인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구한 선행연구는 송순과 신현실(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두 변인 간의 정적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아가 둘 간의 관계가 정체성 명확성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밝혔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면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으로 인해 그동안 외적 가치에 집중하고 학업성취를 단순히 물질적 성취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물질의 중요성을 덜 강조하게 만든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 명확성을 활용한 개입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 수준이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성취압력 역시 매우 높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동시에 한국인의 물질주의 수준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구재선, 서은국, 2015; Cho et al., 2016; Flynn et al., 2013; Suh et al., 2010).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앞서 다루었던 선행연구의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학업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으며 성장한 사람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물질의 성취에서 큰 가치를 느끼는 물질주의적 신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한국은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인들이 이전에 비해 커진 경제 규모와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게 낮은 행복감을 보고하는 이유도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사이에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의 물질주의를 낮출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심리학적 주제이다. 한국 사회는 외적인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로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도 내적인 가치와 흥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다. 본 연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물질주의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선웅, 박예린, 2019).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한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만의 가치판단 기준을 갖게 된다. 그에 따라 외부적인 보상이 없어도 자신의 현재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높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정체성 명확성이 물질주의를 낮추고, 물질주의의 선행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성취압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등 여러 교육 환경에서 정체성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예컨대, 주기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정체성 명확성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인생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웰빙과 행복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결과를 반복 검증하는 동시에 그 연구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밝혔다. 박선웅과 박예린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의 선행요인으로서 사람들이 느끼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안전감에 주목하였다(Kasser et al., 2004). 높은 심리적 불안전감은 상대적으로 확실한, “물체의 안정성(safety of objects)”을 담보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낳게 된다(Rindfleisch, Burroughs, & Wong, 2009, p. 1). 물질주의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적 불안전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낮은 자존감(Chaplin & John, 2007; Kasser & Kasser, 2001),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Noguti & Bokeyar, 2014), 무

규범 상태와 자기의심(Chang & Arkin, 2002) 등 상당수 정체성과 관련 있는 변인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박선웅과 박예린의 연구에서는 정체성 명확성과 정체성 불명확성의 실험적 조작을 통해 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전감을 야기하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물질주의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박선웅과 박예린(2019)의 연구에서는 정체성 명확성 조건과 정체성 불명확성 조건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물질주의의 감소효과가 어느 조건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결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 불명확성 조건 대신 통제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물질주의의 감소가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박선웅과 박예린의 연구에서는 정체성 명확성 조작이 물질주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학업성취압력으로부터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존재적 불확실성, 즉 불명확한 정체성(박선웅, 박예린, 2019)과 자기개념 불확실성(Noguti & Bokeyar, 2014) 등이 높은 물질주의를 유발한다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반복검증하면서 학업성취압력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였다.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부모의 높은 학업적 압박은 서양과 같은 타 문화권과는 구분되는 현상이고, 교육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 변인 중 하나이다. 명확한 정체성이 학업성취압력과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이 밝혀진 만큼, 향후 교육적 맥락에서도 정체성을 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정체성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글쓰기라는 방식으로 순간적으로나마 가능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냄으로써 본 연구가 향후 정체성 탐색 연구를 위한 이론적, 학술적 발판의 역할을 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정체성 명확성을 살펴보았으나, 정체성 명확성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즉,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자녀의 정체성 불명확성을 초래하여 그들의 물질주의 수준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주의를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에 초점을 맞춘 조절 연구라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으나, 학업성취압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물질주의를 높이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조작하는 대신, 정체성 형성 정도를 측정하여 정체성의 확립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물질주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들을 무선할당하였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두 조건의 기질적 물질주의 수치에서 약간의 편향성이 나타났다.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험 조작 전 측정된 기질적 물질주의의 경우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는 4.48점으로 통제 조건의 4.22점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조작 후 측정된 상태 물질주의의 경우 정체성 명확성 조건에서 4.17점으로 통제 조건에서의 4.22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조작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선웅과 박예린의 연구(2019)에서는 기질적 물질주의를 통제하든 안 하든 정체성 명확성 조작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경우 예상외로 무선할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질적 물질주의를 통제해야만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질적 물질주의를 통제하지 않고도 정체성 명확성 조작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한 답은 후속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정체성 명확성 조작에 대해 따로 조작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기존

연구들(박선웅, 박예린, 2019; Hogg, Sherman, Dierselhuis, Maitner, & Moffitt, 2007)에서도 조작 점검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이론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기에 조작의 타당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정체성 명확성 글쓰기 조작에서는 정체성 명확성뿐 아니라 독자성(김윤영,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 박선웅, 2016)과 같은 다른 변인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선행연구는 물론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예측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체성 명확성이 제대로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나, 향후 후속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적절한 조작 점검 문항을 포함하여 실제로 조작이 의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기질적 물질주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두 변인 사이의 인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물질주의를 포함한 특정 가치는 형식적 조작기가 되어야 생기는 반면, 부모의 경쟁적 성취압력은 그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성취압력이 시간상으로 앞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하지만, 자녀에게 성취압력을 가하는 시점은 부모마다 다를 수 있다. 자녀의 물질주의에 대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의 영향력을 실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년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두 변인 중 무엇을 선행요인으로 설정했을 때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생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다. 대학생들은 가까운 과거인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받았고, 또 현재에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학점 경쟁을 해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업성취압력을 받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은 학업성취압력에 관한 적절한 연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업성취압력을 넘어서 스포츠나 업무 성과 등 다른 영역에서의 경쟁적 성취압력 역시 물질주의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는 물질주의의 영구적인 감소가 아닌, 순간적인 변화만을 확인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정체성 명확성 조작을 통해 순간적으로 물질주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실험실 안이 아닌 현실에서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정체성 명확성 조작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반복검증하고 종단적 개입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단일 연구로 진행되었기에 앞서 언급한 매개 연구를 포함, 후속 연구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질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Kasser & Ryan, 1993; Dittmar et al., 2014), 향후 장기적으로 물질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체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단연구를 통해 그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라는 변인은 양육태도의 문화적 특이성을 고려하였을 때,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주요하게 관찰된다(Fan, 2001; Kim, 2005; Pomerantz & Wang, 2009). 그에 따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학업성취압력 변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서양 문화권에서는 학업성취압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동서양의 비교문화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동양 문화권 연구에서 나타난 기존 연구 결과가 서양 문화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추후 학업성취압력의 문화 차이를

연구해봄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확장하고, 문화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성취압력의 효과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조하정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체성과 성장동기이다.

이다예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체성, 삶의 의미, 외상 후 성장 등이다.

박선웅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정체성, 물질주의, 성장동기 등을 주로 연구한다. 저서로는 <정체성의 심리학>이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철 (200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자아 및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doi:10.21193/kjspp.2015.29.4.004
- 기획재정부 (2009, 11, 26). 우리나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05031](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OLD_4005031)에서 2021.8.9. 인출.
- 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한국 학생의 학

- 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87-221.
- 김유나, 설경옥, 박선웅 (2017). 청소년의 물질주의의 가치와 심리적 부적응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3), 237-268.  
doi: 10.30593/JHUC.41.1.3
- 김유진, 김중운 (2013).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실패대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2), 119-148
- 김윤영, 이예은, 주민주, 박유빈, 박선웅 (2016). 독자성과 융화성: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두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283-308.  
doi: 10.22257/kjp.2016.06.35.2.283
- 김지근, 김나래 (2020). 부모의 성취압력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의 두려움과 진로정체감의 이중 매개효과. 인간이해, 41(1), 49-66.  
doi: 10.30593/JHUC.41.1.3
- 매일경제 (2012, 12, 23). "중산층이 되려면" 한중일 설문조사 해보니.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2/12/850296/> 에서 2021.8.9. 인출.
- 박선웅 (2020). 정체성의 심리학: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파주: 21세기북스
- 박선웅, 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doi : 10.21193/kjssp.2019.33.2.001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변주영, 강민주 (2016). 중·고등학생 시험불안에 대한 부모의 성취압력, 인정육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 남녀 간 경로 비교. 청소년학연구, 23(12), 277-302.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 송 순, 신현실 (2002). 대학생의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23-235.
- 신희성, 김태익, 박유빈, 박선웅 (2017).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경제적 수준으로 조절되지 않는 부적관계. 보건사회연구, 37(3), 368-397.  
doi: 10.15709/hswr.2017.37.3.368
- 오옥환 (1999).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고유이론모형의 탐색. 교육학연구, 37, 1-28.
- 외교부 (2021).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327](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327) 에서 2021.8.9. 인출.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doi: 10.20406/kjcs.2018.8.24.3.385
- 이민아, 송리라 (2014). 소득, 물질주의와 행복의 관계. 한국인구학, 37(4), 89-114.
- 이 숙, 우희정, 김미란 (2000).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3(1), 64-72.
- 장은영 (2009). 사회비교와 주관안녕: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57-169.
- 최보가, 손낙주 (1998).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4), 121-135.
- 추상엽, 임성문 (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원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IMSS 2019.
- 홍은자 (2002).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교육논총, 12, 137-146.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rndt, J., Solomon, S., Kasser, T., & Sheldon, K. M. (2004). The urge to splurge: A terror management account of materialism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4*(3), 198-212.  
doi: 10.1207/s15327663jcp1403\_2
- Berzonsky, M. D. (2003). Identity style and well-being: Does commitment matter?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3*(2), 131-142. doi: 10.1207/s1532706xid030203
-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 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doi: 10.1111/1467-6494.t01-1-00002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doi: 10.1037/0022-3514.70.1.141
- Chaplin, L. N., & John, D. R. (2007). Growing up in a material world: Age differences in materialis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4), 480-493.  
doi: 10.1086/518546
- Chang, L., & Arkin, R. M. (2002). Materialism as an attempt to cope with uncertainty. *Psychology & Marketing, 19*(5), 389-406.  
doi: 10.1002/mar.10016
- Christopher, A. N., & Schlenker, B. R. (2004). Materialism and affect: The role of self-presentational concer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2), 260-272.  
doi: 10.1521/jsoc.23.2.260.31022
- Cho, H. J., Jin, B., & Watchravesringkan, K. T. (201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materialism in emerging and newly developed Asian marke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6*(1), 1-10.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doi: 10.1207/S15327965PLI1104\_01
- Diener, E., & Oishi, S. (2000). Money and happiness: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185-218). Cambridge, MA: MIT Press.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doi: 10.1037/a0037409
- Dumas, T. M., Ellis, W. E., & Wolfe, D. A. (2012). Identity development as a buffer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in the context of peer group pressure and control. *Journal of Adolescence, 35*(4), 917-92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doi: 10.1002/bs.3830140209
- Fan, X.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growth modeling analysi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0*(1), 27-61.
- Flynn, L. R., Goldsmith, R. E., & Kim, W. M. (2013). A cross-cultural study of materialism and brand engagement.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3*(3), 49-69.
- Ger, G., & Belk, R. W. (1996).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aterialism.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1), 55-77.  
doi: 10.1016/0167-4870(95)00035-6
- Han, G., Kim, J., & Park, S. W. (2018). Extrinsic value orientation and decreased sustainability of

- shared resources: The moderating role of situational characteristics. *Sustainability*, 10, 2199. doi: 10.3390/su10072199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Hogg, M. A., Sherman, D. K., Dierselhuis, J., Maitner, A. T., & Moffitt, G. (2007). Uncertainty, entitativity, and 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135-142. doi: 10.1016/j.jesp.2005.12.008
- Kasser, T. (2002).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Cambridge, MA: MIT Press.
- Kasser, T., & Ahuvia, A. (2002). Materialistic values and well being in business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1), 137-146. doi: 10.1002/ejsp.85
- Kasser, T., & Kasser, V. G. (2001). The dreams of people high and low in materialism.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2(6), 693-719. doi: 10.1016/S0167-4870(01)00055-1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2), 410-422. doi: 10.1037/0022-3514.65.2.410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doi: 10.1177/0146167296223006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P. Schmuck & K. M.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 116-131). Seattle, Toronto, Bern, Goettingen: Hogrefe & Huber Publishers.
- Kasser, T., Ryan, R. M., Couchman, C. E., & Sheldon, K. M. (2004). Materialistic values: Their causes and consequences. In T. Kasser & A. D.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11-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m, K. H. (2005). Learning from each other: Creativity in East Asian and American education.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7(4), 337-347.
- Levine, C. (2003). Introduction: Structure, development, and identity formation.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3(3), 191-195. doi: 10.1207/s1532706xid0303\_01
- Levine, M. (2006). *The price of privilege: How parental pressure and material advantage are creating a generation of disconnected and unhappy kids*. New York, NY: HarperCollins Publishers.
- Li, J., Lu, M., Xia, T., & Guo, Y. (2018). Materialism as compensation for self-esteem among lower-class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1, 191-196. doi: 10.1016/j.paid.2018.04.038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doi: 10.1037/h0023281
- Meeus, W., Iedema, J., Helsen, M., & Vollebergh, W. (1999). Patterns of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Review of literature and longitudinal analysis. *Developmental Review*, 19(4), 419-461. doi: 10.1006/drev.1999.0483
- Noguti, V., & Bokeyar, A. L. (2014). Who am I?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cept uncertainty and materi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9(5), 323-333.

- doi: 10.1002/ijop.1203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Paris: OECD.  
doi: 10.1787/69096873-en.
- Park, S. W., & Moon, H. (2020).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Current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 10.1007/s12144-020-00926-7
- Pomerantz, E. M., & Wang, Q. (2009). The role of parental control in children's development in Western and East Asian countr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5), 285-289.  
doi: 10.1111/j.1467-8721.2009.01653.x
- Richins, M. L. (2004). The material values scale: Measurement properties and development of a short for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1), 209-219. doi: 10.1086/383436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doi: 10.1086/209304
- Rindfleisch, A., Burroughs, J. E., & Wong, N. (2009). The safety of objects: Materialism, existential insecurity, and brand conne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1), 1-16. doi: 10.1086/595718
- Ryan, L., & Dziurawiec, S. (2001). Materialism and its relationship to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2), 185-197.  
doi: 10.1023/A:1011002123169
- Shek, D. T. (2000). Difference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in the treatment of, and relationship with, their teenage children: Perceptions of Chinese adolescents. *Adolescence*, 35, 135-146.
- Suh, E. M., Prieto, C. K., Diener, R. B.,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1), 1-23.
- Waterman, A. S. (1984). Identity formation: Discovery or creation?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4), 329-341.  
doi: 10.1177/0272431684044004
- Yzerbyt, V. Y., Muller, D., & Judd, C. M. (2004). Adjusting researchers' approach to adjustment: On the use of covariates when testing inter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3), 424-431.

1 차원고접수 : 2021. 05. 10.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8.

최종게재결정 : 2021. 08. 30.

## The Moderating Effect of Identity Clarity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Materialism: An Undergraduate Sample

Hajung Cho

Da Ye Lee

Sun W. Park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AAP) and materialis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dentity clarity between the two. We recruited participants ( $N = 119$ ) from a private university in South Korea. Participants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PAAP and dispositional materialism. Participants were then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identity clarity or control condition. Participants in the identity clarity condition were asked to write about the experiences in which they clearly felt about and grasped their self-identity. On the other hand, participants in the control condition were asked to describe what had happened the day before without including any subjective thoughts and feelings. Right after the writing task, participants completed a measure of state materialism. Supporting our hypotheses, PAAP and dispositional materialism were positively related. Also, in the identity clarity condition, participants showed decreased state materialism relative to dispositional materialism, while no significant change between dispositional and state materialism was observed in the control condition. Lastly, identity clarity manipulation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PAAP and state materialism. Specifically,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PAAP and state materialism was observed in the control condition, but not in the identity clarity condition, after controlling for dispositional materialism, gender, age, and school year.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Keywords* :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materialism, identity clarity, identity*